

90. 2. 23 세계 여성노조운동가 회의 올해 멕시코에서 열기로

[멕시코시티=외신종합] 여성노동자 실태에 관한 정보교환과 각국 연대활동을 위한 여성노동조합운동가들의 회의가 올해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도 1주일간 멕시코 시티에서 한국 미국 구아테말라 멕시코 등지의 여성노동자 50여명이 멕시코의류노조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조합내 여성들의 역할'을 의제로 토의를 가진 바 있었다.

AIDS 관련업종 노조 감염대비 근로기준 요구

[워싱턴=외신종합] 최근 미국의

보건업종 노조들이 정부측에 'AIDS'혈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근로기준을 보면 ▷고용주들이 AIDS예방주사액(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것 ▷AIDS예방조치를 취할 것 ▷예방훈련과 개별안전기구를 준비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2백명 이상의 보건업종 노동자들이 AIDS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병원연맹 등은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측의 요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90. 2. 23 노동자, 환경보호 앞장 불가리아 노조, 법안 요구

[소피아=WTUM, Flashes] 환경보호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불가리아 노조가 노동·생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부터 '자연환경보호법안'을 요구하는 등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은 핵에너지 분야다.

현재 불가리아 노조는 산하에 '노동보호와 사회복지위원회'를 비롯, 노동감사관·실험연구소 등을 두고 핵에너지 발전연구소의 환경안전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가리아노조평의회 서기인 볼코프씨는 "환경보호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다.